

농가등록제는 '농민 고려장'

〈高麗葬〉

전남 '퇴출 대상' 분류 고령농이 대부분

정부, 전업·중소농만 집중 육성

올해 시범 도입된 농가등록제를 토대로 오는 2010년 맞춤형 정부가 실시될 경우 전남지역 농가 절반 가량이 퇴출될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농가등록제가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한 강제퇴출을 위한 구조 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될 경우 고령농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광주·전남지역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한미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나주시 반남면을 비롯해 전국 9개 읍·면 7천 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내년에는 대상농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0년 이후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유형을 전업농, 성장기능 중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 65세 이상 고령농 가수(통계청 2006년 기준)

| | 전체농가수 | 65세 이상 | 비율(%) |
|----|-----------|---------|-------|
| 전국 | 1,245,083 | 552,866 | 44.4 |
| 서울 | 2,934 | 968 | 33.0 |
| 부산 | 7,665 | 2,308 | 30.1 |
| 대구 | 15,646 | 5,950 | 38.0 |
| 인천 | 13,443 | 5,460 | 40.6 |
| 광주 | 12,912 | 4,559 | 35.3 |
| 대전 | 8,045 | 3,016 | 37.5 |
| 울산 | 13,168 | 5,864 | 44.5 |
| 경기 | 135,853 | 49,716 | 36.6 |
| 강원 | 77,742 | 31,334 | 40.3 |
| 충북 | 86,984 | 38,000 | 43.7 |
| 충남 | 161,986 | 71,694 | 44.3 |
| 전북 | 118,906 | 54,067 | 45.5 |
| 전남 | 194,565 | 66,992 | 49.5 |
| 경북 | 205,516 | 97,814 | 47.6 |
| 경남 | 153,251 | 72,835 | 47.5 |
| 제주 | 36,465 | 12,988 | 35.6 |

이에 따라 고령농과 취미·부업농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결국 퇴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

가수는 20만7천477호, 이중 농가등록제 시행에 따라 고령농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농가는 10만851호로, 전체 농가의 절반 가까운 48.6%에 달된다.

특히 전남은 전체 19만4천565호 중 65세 이상 고령농이 49.5%인 9만6천 292호로 파악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이에 대해 농림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관계자는

"수십년 농사를 짓아왔으나, 나이 많고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퇴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농가등록제의 전면 폐기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나주시 농민 정모(56)씨는 "나주시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농인데, 이를

농촌에서 쫓아낸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나주의 분위기는 시범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상태"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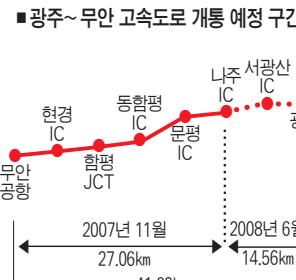
분노했다.

광주~무안 고속도 전남구간 11월 개통

무안공항~나주 27.06km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공사 중인 무안~광주 고속도로 가운데 전남 지역구간이 오는 11월 우선 개통된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무안~광주 직통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무안에서 나주IC까지 27.06km 구간을 오는 11월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월 개통되는 구간은 무안국제공항~현경IC~합평JCT~동합평IC~문평~나주IC로 연결된다. 나주IC~서광산IC~광주시를 잇는 4.5공구 14.56km



리(지방도 831호선)~나주IC로 우회하는 방안과 ▲평동산단~동신대~나주대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로는 30여 년 전 포장된 노후 도로로서, 폭이 좁고 간길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서광산 IC를 이용, 평동저수지 앞에 250m 길이의 임시도로를 개설해 평동산단까지 3분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 관광기자 redplane@kwangju.co.kr

구간은 호남대 인근 터널공사가 마무리되는 2008년 6월 개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공항 개항 이후 광주지역 이용객들이 나주IC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동산단~대산 3거



미국 가는 '나주배'

민족의 대명절 추석절을 20여 일 앞둔 3일 나주시 금천면 나주배 유통센터 직원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유통센터에서 선별된 조생종 배 '원황'과 '황금'은 추석절 구향·귀경 선물은 물론, '나주 배' 브랜드로 올 연말까지 미국에 3천이 수출된다.

/나주=위직랑기자 jwir@kwangju.co.kr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이번 회기 중 민주신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지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한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기대회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5일부터 보름 동안 제227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현지점검, 각종 의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일색으로 채택되었던 의석 분포가 민주당과 민주신당으로 양분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주목된다.

전남도의회(의원 정수 51명)는 지난해 7월 원구성 당시 민주당 46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으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해 민주신당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민주당 26명, 민주신당 2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재편됐다.

이처럼 의석 판도가 급변하면서 1~2명만 추가 탈당해도 과반수 봉고될 위기에 처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 중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주신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나설 태세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17

일 박준영 지사에게 "민주당 의원 빼기로 당장 중단하고 엄중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이례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대표에 황병수 의원을 추대하기도 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추가 탈당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광주시의회도 민주당(14명)·독주체제에서 민주신당(5명)이 등장하고 박광태 광주시장이 민주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유재신 의원이 광주시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 '철저한 준비 부족'을 비판했으며, 광주시 측은 '의적 평화'·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열등감과 패배주의의 사로잡혀'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유 의원을 비난했다.

유 의원은 3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정, "집행부가 순수한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했다"며 작성경위 해명과 시장·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비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신당' 약칭 사용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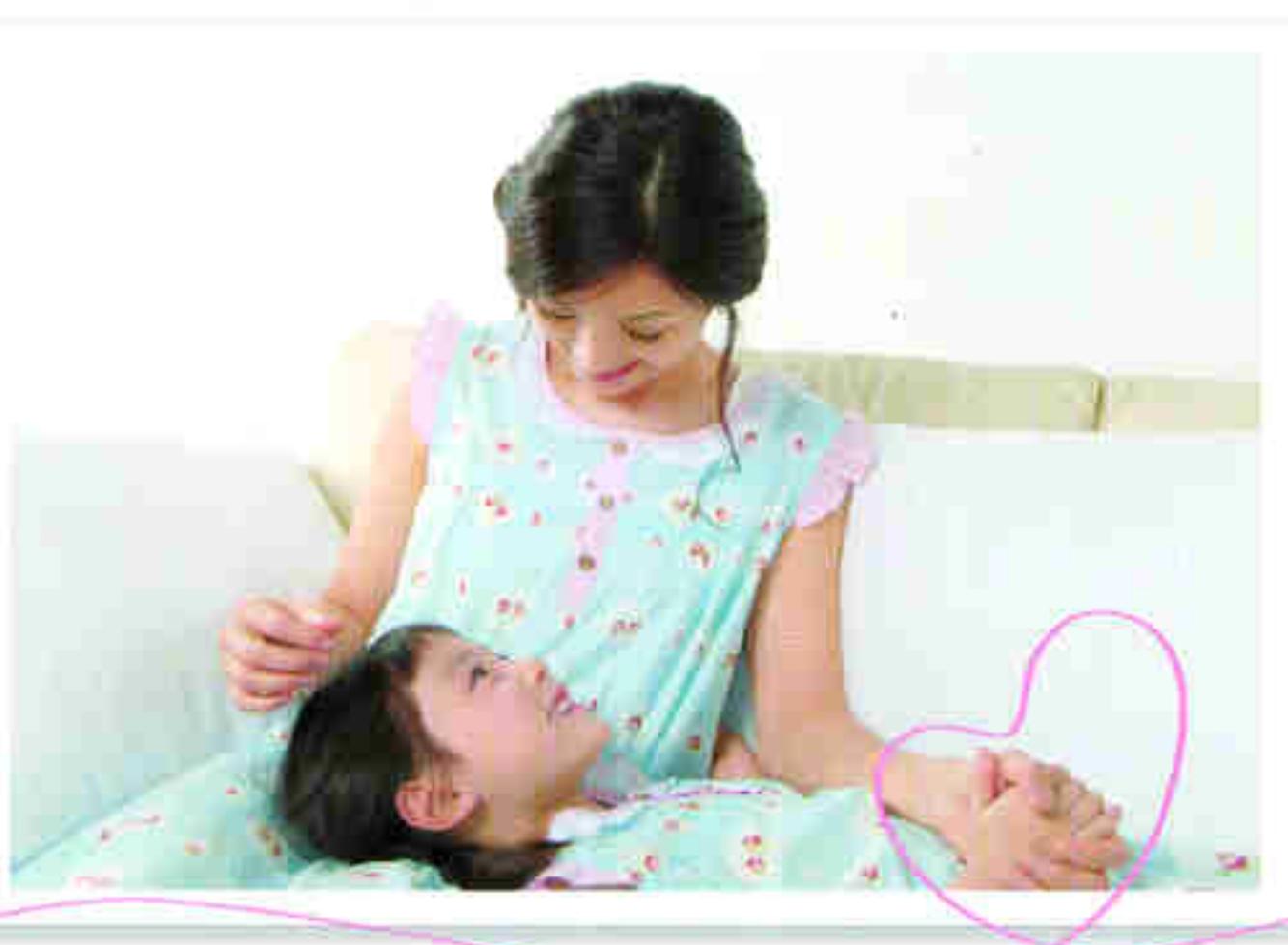
법원 "민주당과 구별 안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현 부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독자적으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브론아이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람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유비피로, 임신·수유기 병증 베스트
제제 저온시, 노년기
- 유익·건조증의 관통, 암병증
- 면역·피부병 등에 의한 세소침약
(기미, 주근깨증 등), 임신증후군, 피로증, 면역·피부병
- 멜초호흡장애 및 경련, 가시, 다증 증상의 완화 / 어린·적·폐암
수족증증 및 수족증증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oreancharm.co.kr
고객을 위한 전화번호: 080-022-2200